러-우크라 대화 임박…휴전 협상 급물살 탈까

푸틴, 트럼프·유럽 공동 압박에 제안… '시간끌기 기만술' 지적도

젤렌스키 "튀르키예서 푸틴 기다릴 것"…30일간 휴전 거듭 강조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11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에 직접 대화를 전격 제안하고, 우크라이나도 이에 일단 응하기로 하면서 지지부진하던 휴전 협상에 전기가 마련될지 주목된다. 직접 대화에 대한 양측의 진정성에 따라 만남의 실제 성사 여부와 협상 결과물이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로이터·타스 등 외신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우크라이나 당국에 오는 15일 튀르키예 이스탄불에서 협상을 재개할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이 제안은 푸틴 대통령이 일방 선언한 72시간의 '전승절 휴전'이 종료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새벽 시간에 나왔다. 전승절 휴전 기간 내내 우크라이나와 서로 적대행위를 중단하지 않는다며 비난을 주고받던 태도를 돌연 바꾼 것이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앞선 관영 매체와 인터뷰에서 우크라이나와 서방이 요구해 온 '30일 휴전안'에 대해 "숙고해 봐야 한다"며 전향적인 태도를 보이기도 했다.

갑작스러운 방향 전환의 배경은 우선 서방의 전방위 압박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전날 유럽 4개국(영국, 프랑스, 독일, 폴란드) 정상은 우크라이나 키이우를 방문,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함께 12일부터 30일간 육해공에서 모두 휴전하자고 러시아에 촉구했다.

이들은 휴전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우크라이나 군사 지원을 확대하고 미국과 함께 에너지·금융 부문에 추가 제재를 가하겠다고 러시아를 압박했다. 5개국 정상은 이날 함께 통화한 트럼프 대통령도 조건 없는 휴전을 지지했다고 전했다.

러시아를 대하는 미국의 태도도 예전 같지 않은 분위기가 감지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6일 프란치스코 전 교황 장례식을 계기로 바티칸에서 젤렌스키 대통령과 독대한 이후 소셜미디어에서 2차 제재 등을 거론하며 "(푸틴 대통령이) 다른 대우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도록 한다. 너무 많은 사람이 죽고 있다"고 했다.

그간 러시아 편을 들며 우크라이나에 불리한 조건을 강요한다고 평가받았던 미국까지 가세해 압박하자 푸틴 대통령도 직접 대화의 뜻을 밝히며 한 걸음 물러선 모양새다.

푸틴 대통령의 제안에 우크라이나는 이날 오전까지만 해도 30일간 휴전이 먼저 이뤄져야 직접 대화에 나설 수 있다며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은 엑스(X·옛 트위터)에 "러시아가 마침내 전쟁 종식을 고려하기 시작했다는 건 긍정적인 신호"라면서도 "전쟁을 진정으로 종식하는 첫 번째 단계는 휴전으로, 러시아가 12일부터 완전하고 지속 가능하며 신뢰할 수 있는 휴전을 확인해주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후 이날 오후 젤렌스키 대통령은 같은 소셜미디어(SNS)에 12일부터 휴전이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거듭 강조하면서도 "목요일(15일) 튀르키예에서 푸틴을 기다리겠다. 직접. 이번엔 러시아가 핑계를 찾지 않길 희망한다"며 태도를 바꿨다.

여기에는 양측의 협상 중재자로 나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압박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후 자신이 설립한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우크라이나는 즉시 이에(러의 대화 제안) 동의해야 한다"며 "나는 우크라이나가 푸틴과 협상을 할 것인지 의심이 들기 시작했다. (러시아와의) 회담을 당장 하라"고 촉구했다.

현 단계에서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이스탄불 회담이 실제 성사될지, 어느 급이 테이블에 앉을지 등이 안갯속에 가려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본인이 직접 이스탄불에서 푸틴 대통령을 기다리겠다고 했으나 푸틴 대통령이 이에 응해 본인이 등판할지는 미지수다. 푸틴 대통령이 회담에 직접 나오지 않을 경우 이를 이유로 우크라이나 측이 회담에 참여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와 서방 동맹국은 여전히 푸틴 대통령의 '진정성'을 의심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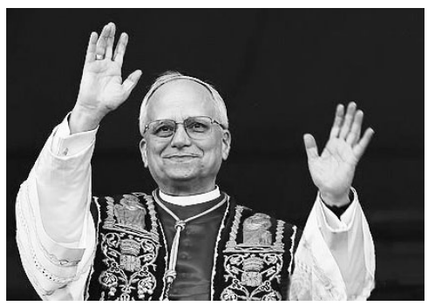
당장 제재를 피하기 위해 대화하는 시늉만 하면서 시간을 끄는 특유의 기만술이라는 것이다. 푸틴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의 경고성 발언이 나올 때마다 부활절 30시간 휴전, 전승절 72시간 휴전 등을 일방적으로 선언한 적 있다. 임시 휴전 기간에도 양국 간 교전이 이어졌다.

러시아는 이번 전승절 휴전이 종료되고 푸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직접 대화를 제안한 뒤에도 우크라이나에 대한 공격을 재개했다.

북한의 군사 지원을 등에 업고 쿠르스크 지역을 상당 부분 수복하는 등 전장에서 우세인 러시아가 이스탄불에서 회담 테이블은 열어둔 채 시간을 벌며 군사행동을 확대할 가능성도 있다. /연합뉴스

유력하지 않았던 레오 14세, 첫 투표부터 '유력 3인'

NYT, 콘클라베 막후 선출 과정 보도



제267대 교황 레오 14세(로버트 프랜시스 프레보스트·69·사진)는 콘클라베(추기경단 비밀회의) 전까지 교회 바깥에서는 유력한 교황 후보로 그다지 알려지지 않은 인물이었지만 첫 투표부터 두드러진 표를 얻었고, 이후 선출 과정에서 신속하게 지지세를 결집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 일간 뉴욕타임스(NYT)는 콘클라베에 참여한 10여명의 추기경과 바티칸 교황청 관계자의 증언을 토대로 베일에 가려졌던, 첫 미국인 출신 교황인 레오 14세의 선출 과정이 어떻게 진행됐는지를 1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가톨릭의 새 교황을 선출하기 위해 전 세계에서 바티칸으로 모인 추기경 선거인단 133명은 콘클라베 첫날인 지난 7일 오후 투표장인 시스티나 성당 예배당으로 향하며 길고도 엄숙한 행렬을 이뤘다.

추기경들은 투표에 앞서 비밀 엄수 서약을 했고 오후 6시가 조금 못 돼 콘클라베 시작을 위해 예배당의 문이 닫혔다.

이후 추기경단 앞에 놓인 임무의 엄중함에 관한 발언이 약 1시간가량 이뤄졌고, 콘클라베를 주재한 피에트로 파롤린 추기경이 첫 투표를 다음 날 오전으로 미루길 원하는지 의견을 구했다.

추기경단이 곧바로 투표를 진행할 것을 원하면서 첫 투표가 오후 7시 30분께 시작됐다. 이후 성당 굴뚝에서 교황 선출 불발을 알리는 검은 연기가 피어오른 시간은 오후 9시께였다.

성당 바깥에서 기다리던 군중들은 별다른 설명 없이 이날 밤늦게까지 연기가 피어오르지 않는 것을 보고 추기경들이 첫날 곧바로 교황을 선출한 게 아니냐는 추측을 하기도 했다.

이번 콘클라베에 한국인 성직자로는 유일하게 참여한 유흥식 추기경(교황청 성직자부 장관)은 "첫 투표에서 몇 분이 두드러지게 표를 얻었다"라고 전했다.

NYT는 교황청 내부 관계자를 인용, 첫 투표에서 두드러진 표를 얻은 후보에 파롤린 추기경과 페테르 에르되(헝가리) 추기경, 프레보스트 추기경이 포함돼 있었다고 전했다.

이탈리아 출신인 파롤린 추기경은 교황청 서열 2위인 국무원장으로서 유력 후보로 일찌감치 거론돼왔지만, 출신국인 이탈리아 추기경들로부터 일치된 지지를 얻지 못한 데다 일부 추기경들이 그의 성향에 불편함을 가지면서 첫 투표에서 압도적인 지지를 받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에르되 추기경은 일부 아프리카 지역 추기경을 포함해 보수 성향 추기경들의 지지를 받긴 했지만, 전임 프란치스코 교황 재위 중 임명된 추기경들이 다수인 상황에서 추가로 표를 확보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이번 콘클라베에서 투표권을 지닌 추기경 133명 중 108명이 프란치스코 교황에 의해 추기경으로 임명된 이들이었다.

이 때문에 추기경단의 이목은 첫 투표에서 두드러진 표를 얻은 남은 후보자인 프레보스트 추기경에게 쏠렸다고 NYT는 전했다.

그는 페루에서 오랜 세월 사목했고 스페인어를 유창하게 구사하며 라틴아메리카 교황청 위원회 수장을 거쳤다는 점에서 남미 지역 추기경들의 지지를 끌어낼 수 있었다.

NYT는 프란치스코 교황 선종 후 콘클라베가 열리기까지 추기경들이 매일 회의를 열어 교회의 미래 방향에 대해 논쟁하는 동안 북남미 대륙의 추기경들이 프레보스트 추기경을 중심으로 결집하는 것처럼 보였다고 전했다.

독일 출신으로 프란치스코 교황의 개혁 정책을 견제한 게르하르트 뮐러 추기경은 남미 지역 추기경들로부터 프레보스트 추기경이 "분열적이지 않다"라는 평을 들었다고 했다.

다음 날 오전 이뤄진 두 차례의 투표는 선거의 윤곽을 더욱 명확하게 만들었다.

유승식 추기경은 "두 번째 투표에서 더 좁혀지고, 세 번째 투표에서 확실히 더 좁혀졌다"며 "네 번째 투표에서는 (레오 14세 쪽으로) 표가 확 쏠렸다"라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네 번째 투표 결과를 개표하는 과정에서 프레보스트 추기경이 교황 선출에 필요한 89표를 확보한 것으로 확인되는 순간 모두가 일어나 박수를 보냈다.

필리핀의 파블로 비르질리오 시옹코 다비드 추기경은 그 순간에 대해 "그는 앉아 있었다. 누군가 그를 일으켜 세워야 했다. 우리 모두 눈물을 글썽였다"라고 회상했다.

비밀 엄수 서약 탓에 정확한 득표수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마다가스카르의 데지레 차라하자나 추기경은 "그는 매우 매우 많은 표를 얻었다"라고 전했다. /연합뉴스

인도-파키스탄 휴전 11일(현지시간) 파키스탄 남부 카라치에서 지지자들이 인도와 휴전 합의 후 환영 집회에 참가하고 있다. /연합뉴스

나이지리아 유혈 충돌 23명 사망…"농민·유목민 갈등"

아프리카 나이지리아에서 무장대원들의 공격에 주민 23명이 숨지는 일이 발생했다고 AFP통신이 1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적십자사 관계자에 따르면 나이지리아 중부 베누에주의 마을 네 곳에서 전날 각각 유혈 충돌이 일어났다.

적십자사 베누에주 담당 앤서니 아바는 "현장 보고에 따르면 충돌로 최소 23명이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라며 "우쿰에서 8명, 로고에서 9명, 구마와 크완데에서 각각 3명이 사망했고 여러 명이 다쳤다"라고 말했다.

경찰 측은 이번 사건에 대해 파악한 바 없다고 밝혔으나 토지를 둘러싸고 벌어진 유목민과 농민 간 갈등으로 인해 촉발된 것으로 추정됐다.

이 지역 한 주민은 AFP에 유목민으로부터 빼앗은 오토바이를 타다가 숨은 두 사람을 포함한 세 건의 살해 소식을 들었다고 전했다.

나이지리아 중부에서는 생계 기반인 목초지와 농지를 둘러싸고 무슬림인 유목민과 기독교인 농민 간 유혈 충돌이 자주 발생한다.

중부 고원지대인 플래토주와 주변 지역은 나이지리아에서 민족, 종교적 구성이 다양해 '미들 벨트'(middle-belt)로 불린다.

여기에 급속한 인구 증가와 기후 악화로 천연자원을 둘러싼 갈등까지 커지면서 제한된 토지를 차지하기 위한 폭력 사태가 멈추지 않고 있다.

최근에는 유목민과 농민 부족 사이의 충돌이 종종 '반디트'로 불리는 현지 무장단체에 의한 마을 습격으로 번지면서 상황이 악화했다. /연합뉴스